

소비자 욕구표현은 5%뿐... 95%는 무의식

‘이모션’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 지음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은 이에 따라 ‘우리의 지갑을 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부제에 어울리게 ‘감정’과 ‘무의식’이라는 키워드를 마케팅과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밝혀내고 있다.

감정 강화 마케팅의 개념을 익히는 것부터 소비자의 무의식적 동기를 인식하는 법과 그러한 동기에 호소하는 방법 등을 들여다보고 감정 강화 마케팅의 본격적인 전략과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들을 소개한다. 전자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에 이어 뇌 과학을 활용한 감정 강화 마케팅을 다뤘다.

〈흐름출판·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00원이면 동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살 수 있다. 그런데 3000원이 넘는 데도 외국 브랜드 생수를 사는데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맛이 큰 차이가 있는데도 브랜드 상표만으로 지갑을 꺼는 이유는 뭘까.

독일 경제학자로 신경마케팅 분야 권위자인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은 ‘이모션’에서 인간의 뇌와 무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정보들을 분석하고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을 구사하는 방법을 전해주었다.

“소비자의 욕구 가운데 표현되는 건 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무의식에 잠재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소비자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없이 제대로 된

세계화 과정 누가 인류의 삶을 바꿔놓았나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

전성원 지음



리의 상징’인 살인 기계 AK47 소총을 만든 미하일 칼라시니코프, 유통혁명의 근원 윌마트를 세운 샘 월턴 등을 다루고 있다.

또 개인주의 혁명을 불러온 소니 워크맨의 창조주 모리타 야키오, 침묵하는 다수의 마음을 읽은 여론조사의 선구자 조지 갤럽, 작은 생쥐 하나로 글로벌 미디어 제국을 세운 월트 디즈니, 세계인을

고객으로 호텔 네트워크를 건설한 호텔 제왕 콘라드 힐튼, ‘플레이보이’로 포르노 제국을 건설한 휴 헤프너, 행복한 가정이란 환상을 판매하는 살림의 여왕 마사 슈튜어트 등이 만들어진 사회·정치적 인프라의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인물과사상사·1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러 과자를 사고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TV 애니메이션을 본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은 대충 엇비슷하다.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는 “그럼 이러한 일상적인 일을 만든 선구자들은 누구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계간지 편집장인 저자 전성원씨가 2년 여에 걸쳐 ‘일간 인물과 사상사’에서 연재된 칼럼을 다듬어 묶은 것으로, 근대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우리 생활에 깊은 영향을 준 인물 16명을 정해 살피고 있다.

자동차로 현대의 시간을 ‘창조’한 헨리 포드와 ‘테

FEAR OF FOOD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

하비 리벤스타인 지음



‘식품공포’ 피해야 할까 고민 말고

“음식, 즐기면서 적당히 먹어라”

흔란스럽고 불편할 지 모르겠다. 광고와 전문가들의 의견, 언론 보도 등을 접하면서 당연한 듯 받아들였던, 일반적인 음식 상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가득해서다.

‘비타민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피로 회복제로,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거나 ‘식이 지방을 줄이면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의 원인’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들을 깨내놓았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과장됐거나 하면, 전혀 사실 무근이거나 소수의 특정인들만 걱정해도 될 것들을 마치 모든 미국인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인 양 과대 포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에서만 그럴까.

캐나다 온타리오 주 맥마스터대학 역사학 명예교수인 하비 리벤스타인은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통해 건강을 해치는 음식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적당히 즐기라”를 조언한다. 또 음식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에 호들갑떨며 매달릴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갖가지 지켜보면서 꼼꼼이 따져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당연한 듯 들리지만 책은 먹거리에 대한 사회

적 불안감 내지 공포를 유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짝퉁한 수익을 쫓는 사람들과 이들의 이해관계를 역사적 사실과 기록 등과 함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명을 연장해주는’ 비타민 열풍에 대한 허와 실, 포화 지방 대신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라고 식품 가공업체들에게 권장했던 미국심장협회의 어처구니없는 이중적 태도,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의 주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지방을 악마의 화신’으로 몰아간 이유 등을 상세히 풀어놓았다.

대표적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우유가 영양아들의 설사를 유발하는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가 대규모 캠페인을 통해 ‘안전 식품’으로 변신하는 과정, 생명 연장의 묘약으로 불렸던 요거트의 불라, 유제품이 ‘기적의 식품’에서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을 떠올리게 하는 제품으로 돌변한 이유 등도 흥미롭게 읽힌다.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은밀한 꼼수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저자의 주장은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요구르트를 ‘블로장성 명약’으로 꼽았던 메치니코프, 비타민 전도사인 엘

머 맥컬립 등 저명한 영양학자들의 주장을 꺼내 놓고 논리적 비약을 파헤친다.

책을 읽다보면 막대한 자본을 거느린 식품 가공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보건 당국은 위생 관리를 명목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고, 과학자와 의사도 영양학 연구를 내세워 돈을 지원받는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이들이 유발한 먹거리 공포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의 선택이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심어 줬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저자는 특히 산업화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문과 라디오 등 언론 보도에 의존해 식품 정보를 접하고 있는 중산층이 이러한 ‘과당’에 쉽게 유혹당하는 피해자라고 꼽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식품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걸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저자의 조언, 심겁다. “새로운 사실이 발표될 때 ‘누가 이익을 얻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식하지 말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적당히 즐기라.”

〈지식트리·1만4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양 전통철학·동양 전통사상

흥미진진 역사 속 뒷 이야기

12살 소녀 눈에 비친 작지만 따뜻한 세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김상환 지음



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주역에서 따온 ‘계사존재론’은 유와 무, 생과 사, 음과 양 같은 다양한 이항대립의 무한한 교대과 반복으로 구성되는 존재를 설명하고 조명의 끈 운통, 즉 계사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저자는 4부로 나눠 인문적 상상력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인간, 언어, 역사 등 인문학의 구심점을 이루는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문학과학지성사·2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에피소드 한국사’

표학렬 지음



에피소드 55편을 모아냈다. “난, 내 민족을 못 믿겠다.”(김육군), “조선은 좁은 자가 인자”(거문도 사건), 민족 반역자가 된 ‘엄친아’(이완용),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레주’(이시영·이희영) 등 저자가 붙인 부제가 재미있게 읽힌다.

‘에피소드 한국사’는 15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온 표학렬 씨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 속 뒷 이야기를 엮어낸 책이다.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은 흥미진진한 수업 시간을 위해 모기가 시작하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틈새를 에피소드로 채워넣었고 책 말미에 연표를 붙여 세 계사 흐름 속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앨피·1만6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리틀 시카고’

정한아 지음



선화는 ‘리틀 시카고’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소설은 폐쇄 결정이 알려지면서 서 제각각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흑인 아빠를 둔 미카, 미군들이 버리고 간 고아들과 돌봐주는 존 목사님과, 짝사랑하며 지 등 주인공들의 모습과 선화의 숨겨진 가족사가 얽히며 전개된다.

작가는 연재를 하기 전에 동두천의 카페와 클럽에서 취재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생한 인물들을 만 들어냈다. 출판사의 흥보 문구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성장하는 선화를 보면 은희경의 ‘새의 선물’ 속 인물 진희가 떠오른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어린이 책꽂이

▲여왕 페기 = 미국 워싱턴 D.C의 가나대사관에서 광범한 비서로 일하던 페기인 바텔스가 하루아침에 아프리카 고향 땅의 부족 후계자로 지명돼 마을을 이끌게 된 신화를 재구성한 책.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던 페기는 2008년 삼촌의 뒤를 이어 아프리카 오우마의 부족 마을 지도자로 지명돼 척박한 환경을 딛고 7천 명의 주민을 돌보는 ‘여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세종서적·1만4000원〉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한 24일 =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물리 현상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인 레오니트 아자르프는 ‘와플과 주걱’, ‘삶은 달걀과 관상’, ‘프렌치 토스트와 열역학 2법칙’ 등 아침 식사 메뉴와 얽어 어려운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한편, 물리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경위와 과정, 물리학계에 이룩한 업적들도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

〈아인북스·1만5000원〉

▲개와 영혼이 뒤바뀐 여자 = 소심한 여자, 제시카와 그녀의 개 ‘조예’의 영혼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냈다. 뻘뻘 소재에 유치할 법 하지만 특색 있는 대사에 예상치 못한 반전 등으로 쉽게 책장이 넘어간다. 양성동물 컴퓨터에서 일하는 작가 엘사 왓슨은 조예의 입을 통해 버림받는 동물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를 강조하는 한편, 열악한 상황에서 처해있는 유기 동물 실태도 고발한다.

〈레드박스·1만2000원〉

▲오더 메이드 살인 클럽 = 올해 일본 나오 키상을 수상한 초지무라 미즈키의 장편 소설로, 괴팍하고 변화무쌍한 성장기 갈등과 고민을 미스터리 틀 안에 녹여낸 청춘 미스터리물이다. 정통 미스터리 형식을 벗어나, 앤과 도쿠가와 등 청춘 남녀 2명의 불안한 심리를 미스터리 전개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 예상 밖의 결말 등이 눈길을 끈다. 〈북스토리·1만3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예술의 조건-근대 미학의 경계 = 근대 정치·사회적 조건과 예술간 경계가 예술과 미학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문맥을 치밀하게 조명하고 있다. 오타베 다네히사 도쿄대 교수는 소위·선입견·국가·방위·역사 등 근대 미학을 형성했다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학의 탄생, 전개 양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돌베개·2만원〉

▲불국도를 꿈꾼 그들은 =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삼국유사를 새롭게 해석해 내놓은 책으로,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삼국유사에 숨겨진 비밀을 역사적 사건의 전후관계와 맥락을 살피며 하나씩 풀어간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비롯해 서역에서 건너온 밀본의 정체와 국난을 막아낸 밀교의식 ‘문두루’ 비밀, 도개비와 귀신을 다스린 비형량의 정체, 황룡사 9층 탑 건립 배경, 원효 스님이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 등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신선하다. 〈문학의문학·1만8000원〉



▲처음 만나는 나의 자연 노트 = 자연 생물들에 관한 흥미로운 지식과 정보를 담은 3~7세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숲 속 동물, 바다 생물, 바닷가에서, 나무와 나뭇잎, 정원의 곤충들, 세상의 새들 등 6권으로 이뤄진 시리즈물로, 프랑스 출신 올리비아 루소의 돋보이는 일러스트와 글 외에 스티커 붙이기와 색칠하기, 상상해 그리기, 9가지 퀴즈 등 아이들이 즐기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달리·각권 7800원〉

▲포기하지마! 롤러코스터 = 동화작가 고정욱씨가 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가족 동화. 필리핀에서 온 삼형제 가족이 겪게 되는 낯선 생활 속에서 가족, 친구간 사랑과 우정,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과정을 정감있게 그려냈다. 어떤 경우에도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연인M&B·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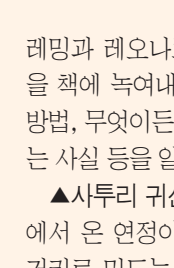
▲열한 살에 읽는 손자방법 = 손자방법의 원문을 살리면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엮어냈다. ‘싸움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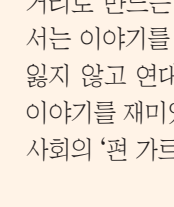
‘이기는 지혜’ 등 2권으로 나눠 전략과 전술 법칙을 토대로 한 인간 관계의 노하우, 삶의 지혜 등을 소개하고 있다. 〈피랑새·각권 1만8000원〉



▲거꾸로 색 = 노란 우비를 입고 아이들만큼 키가 작은 거꾸로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려냈다. 한국인테레트선상 문학부문 대상을 수상한 권타오씨가 알렉산더 플



레밍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거꾸로 발상을 책에 녹여내면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방법, 무엇이든 노력하면 값진 결과를 얻게 되는 사실 등을 알려준다. 〈주니어RHK·9000원〉



▲사투리 귀신 = 미술대 진학을 꿈꾸며 시골에서 온 연정이 사투리를 무시하며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세상에 궁정과 태평함으로 맞서는 이야기를 담았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의 의미를 깨닫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사투리를 통해 사회의 ‘변 가르키’ 세태를 꼬집고 있다. 〈창비·9500원〉